더이상 소유할 수 없는 '무소유'

"절판 되기 전 사자" 법정스님 책 '품귀'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하고 먼 길을 떠난 법정스님이 남긴 책을 더 이상 서점가에서 구하기 어렵게 됐다.

스님은 지난 11일 입적하기 전 "그동안 풀어놓은 말 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독자들이 스님의 저서를 앞다퉈 사면서 스님의 책이 귀해졌고, 품귀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충장서림은 법정스님의 입적 소식이 알려진 지난 11일 오후, 스님의 책을 찾는 독자들이 늘 것으로 보고 '법정스님 저서 모음' 코너를 따로 만들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무소유', '일기일회', '아름다운 마무리' 등 스님의 산문집과 법문집 300여 권이 모두 판매돼 코너를 치워야 했다. 서울 교보문고의 경우 법정스님 입적 후 저서 판매량이 하루 만에 5배 늘었다. 인터파크도서에서도 '무소유', '일기일회', '아름다운 마무리' 등 스님의 산문집과 법문집이 판매량 1~3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충장서림 안동희 총무부장은 "13일 오후 '무소유'의 출판사 재고 물량 50권을 어렵게 구했는데, 1시간 만에 모두 판매돼 현재는 단 한 권의 책도 구하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서점에서 거래되는 법정스님의 책 대부분은 출판사의 재고 분량이기 때문에 광주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스님의 책을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프라인 서점뿐 아니라 예스24, 알라딘, 인터넷교보문고 등 대부분 인터넷 서점들에서도 '품절', '절판', '판매중지'로 안내되고 주문이 불가능하다.

김수환 추기경,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저서들의 판매량이 급증하긴 했지만 이처럼 서점가 공급량이 동날 정도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전에 없는 현상이다.

문제는 또 있다. 스님의 유언을 그대로 지킨다면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만일 저작권자인 법정스님측에서 출간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새로 책을 찍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스님의 저서를 출간한 출판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홀로사는 즐거움' 등을 출판한 샘터사의 김성구 대표는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맑고 향기롭게'의 결정에 따라 절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학의숲 고세규 대표도 "지난 4일 스님을 찾아뵈었지만 절판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스님과의 마지막 약속은 '계약서'이므로 계약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76년 첫 출간된 법정스님의 '무소유'는 330만 부 넘게 팔려나간 스테디셀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12일 법정스님의 저서들을 한자리에 모은 광주시 동구 충장서림에서 시민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문세 '붉은노을' 이번엔 목포 물들인다

19~20일 시민문화센터서 관객 사랑 '빅 콘서트'

무대 위 조명이 밝혀지고, 객석 위에 20인조 규모의 오케스트라가 모습을 드러내며 그의 히트곡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관객들의 환호 속에 등장한 그는 감미로운 멜로디의 '소녀'를 부르며 관객들에게 첫 인사를 했다.

이어지는 그의 히트곡 메들리. "초반에 히트곡이 너무 많이 등장하죠. 뒷 부분에는 무슨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나 걱정 돼 시죠(웃음)" 그의 우스갯 소리 처럼 '가수 이문세'의 공연은 말 그대로 히트곡 퍼레이드의 현장이었다. 관객들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히트곡들을 따라 부르고, 옛날을 회상하며 추억에 잠겼다.

지난 1월말 열렸던 '이문세 붉은 노을' 광주 공연은 그렇게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줬다.

이문세가 오는 19일(오후 8시), 20일(오후 7시)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팬들을 만난다.

1996년에 첫선을 보였던 이문세 콘서트 '독창회'는 한국의 대표 명품 콘서트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며 '브랜드 공연'의 서막을 열었다. 그가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전국 투어 콘서트 '붉은 노을' 역시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또 다른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까지 찾아가 공연을 펼치며 지역민들에게도 문화 향기를 전하고 있다.

공연 내내 이문세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깊은 밤을 날아서', '광화문 연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등 히트곡을 들려준다. 또 듀엣곡인 '이별 이야기'는 관객들과 한소절씩 나눠 부른다.

피아노, 기타, 타악기와 함께 어우러지는 어코스틱 공연 역시 놓치기 아까운 무대. 재기 넘치는 입담과 함께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게 편곡된 곡들을 통해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관객들을 열광시키는 무대도 있다. '조조 할인', '알 수 없는 인생', '붉은 노을' 등 흥겨운 노래가 울려퍼질 때면 관객들은 객석에서 모두 일어서 함께 뛰며 노래한다.

그밖에 스태프들이 몰래 찍은 관객들의 사진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붉은노을 대상 시상식 이벤트'와 이문세의 화려한 입담 역시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티켓 가격 9만 9천원~7만 7천원.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힙합·재즈·국악 어울림 무대

나주시립삼현육각 16일 KBS 공개홀

나주시립삼현육각 연주단(상임지휘자 김기종)이 16일 오후 7시 30분 KBS 광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정기연주회 '춘풍'을 개최한다.

KBS 광주방송총국 개국 68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연주회에서 국악 창작곡을 비롯, 다양한 협연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은 백대웅곡 '남도 아리랑'으로 문을 열며 '양산도를 주제로 한 해금협주곡', 25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영천 아리앙과 옹헤야', 피리와 태평소를 위한 협주곡 '코-사무이' 등을 들려준다. 또 비보이 민경준씨가 협연하는 '삼현육각과 프리스타일 비보이'(김기종 곡)는 힙합리듬과 재즈, 국악 선율이 어우러지는 곡으로 눈길을 끈다.

그밖에 나빌레라 무용단, 가수 유지나씨등이 협연한다. 이번 공연 실황은 21일 오후 1시20분 KBS 1 TV를 통해 방영된다.

지난 2005년 창단된 나주시립삼현육각 연주단은 한국적인 것을 바탕으로 몽골 국립관현악단, 일본 사미센 연주단과 협연 무대를 갖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시장의 진화는 계속된다, 쭈욱

지난 2002년 3월, 담양에 거주하는 한국화가 윤남웅은 '사고'를 쳤다. 5일에 한 번씩 장이 서는 담양 창평시장의 한 골목에서 전시회를 연 것이다. 장소는 비릿한 고기냄새와 왁자지껄 입담으로 가득한 국밥집이었다. 전시회 하면 화려한 전시장을 떠올리는 보통 사람들에겐 쇼킹 그 자체였다. 아니나 다를까. 전시회 소식을 들은 지인들은 "그림에 '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무슨 전시회냐"고 못마땅해 했다.

하지만 전시회는 이런 기우를 깨고 대박을 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이 열리자 마자 손님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며칠 전부터 국밥집에서 전시회가 열린 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호기심에 들른 사람들이었다. 순박한 시골 사람들의 애환을 화폭에 옮겨놓은 윤씨의 그림을 접한 손님들은 마치 자신이 작품의 주인공인냥 신기해했다. 그림은 고상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들이나 즐기는 '사치'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국밥집 전시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평소 먹고 사는 데 바빠 전시장과는 담을 쌓고 살던 상인들 역시 윤씨의 '깜짝이벤트'에 즐거웠다. 매상이 2~3배로 오른 탓도 있지만 벽면에 내걸린 '작품'들이 왠지 어수선했던 식당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5일 간격으로 한달간 계속된 윤씨의 전시회는 이후 뜻을 같이하는 작가들이 참가하면서 제2, 제3의 '창평국밥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2006년 4월 말바우 시장에서 열린 '국밥에 담긴 그림전'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엔 박수만, 박문종, 전현숙 등 10여 명의 청년작가들이 의기투합해 일을 벌였다. 쓸쓸한 장날의 풍경을 예술적 터치로 재현한 그림과 사진 이외에 퍼포먼스와 공연행사들까지 볼거리가 많아졌다. 한 작가는 국밥집에 홀로 앉아 텁텁한 막걸리를 한잔 걸치는 중년 아저씨의 축 처진 어깨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고, 다른 작가는 백열등 전등 뒤에 걸려 있는 선술집의 메뉴표와 달력을 캔버스로 끌어 들였다.

창평국밥 프로젝트는 대인시장에서 꽃을 피웠다. 지난 2008년 제7회 광주비엔날레 '제안'섹션의 복덕방 프로젝트 무대였던 대인시장은 예술인들의 상상력과 상인들의 참여가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예술공간으로 변신했다. 비엔날레가 끝난 지 2년이 지났지만 30 여명의 작가들이 이곳에 입주해 작업중이다. '시장 안으로 들어온 작가' 들 덕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고, 상인들도 이웃점포에 둥지를 튼 예술가들과 동거동락 하며 '예술'에 눈을 떠가고 있다. 대인시장은 쇠락해가는 재래시장의 재생모델로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이 될 정도다.

최근 광주 남구 무등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의 멋과 정취를 살리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무등시장은 내년 말까지 사업비 4억원을 지원받아 문화활력거점 지역으로 거듭난다.

이제 시장은 매매(賣買)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예술이 만나는 '소통'의 장으로 진화중이다. 창평국밥 프로젝트, 대인시장 복덕방 프로젝트는 톡톡튀는 예술적 발상을 보여준 사례다. 무등시장이 우리들에게 또 어떤 마법을 보여줄 지 궁금하다.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